

이래서 진도다

진도(珍島)는 국악·민속·무속 등 향토문화의 원형이 박동(搏動)하는 섬이다. 맛과 신명을 타고난 진도도 사람을 키우고, 민속문화를 꽃피운 원종(元種)과 진도도 기질의 원형(原形)이 진도사람들의 숨결과 삶에 녹아 있다. '곳'의 땅 진도에는 '귀명창'이 많다. 웬만큼 소리하는 사람도 진도 사람들에게 배우는 일은 흔해 드물다고 한다. 진도 섬에 정착한 토박이들은 모태에서부터 음악의 세례를 받는다. 임태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왕맛이 곳, 아기가 태어난 뒤에 이례선 곳, 혼인을 하면 삼백이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땅자를 달래는 빗감곳을 했다. 진도 사람들의 성로병사가 모두 '돛판'이다. 이들의 예술적 끼가 배어난 이유다.

빗감곳·강강술래 등 무형문화재만 9개



진도 사람들의 삶의 소리인 국악·민속·민속은 대부분 무형문화재가 됐다. 빗감곳·남도노래·강강술래·진도 다시래기 등 4종은 국가지정 중요무형 문화재다. 진도 북놀이·진도만가·남도잡가·소포절문악·조도 닻베노래는 전남도 지정 문화재다. 현존하는 무형문화재만도 9개다. 전문가들이 진도를 무속·민속의 보고로 부르는 이유다.

유배객들 낯선 섬에 문화 뿌리내려

삼별초가 진도에 머문 10개월 동안 용장산성을 구축하고 제주도, 거제도도 물론 육지의 진주와 나주 같은 대도시를 포위 공격할 정도의 군세(軍勢)를 갖춘 때는 진도인들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진도 아리랑에도 세태풍자 등 저항성이 담겨있다. 시대와 풍속의 변화, 세태, 현실의 부조리 같은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통렬히 풍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같은 아리랑 범주에 속하는 밀양 아리랑·정선 아리랑과 궤를 달리하는 이유다.

진도의 옛이름은 옥주(沃州)였다. 현재의 명칭도 보배로운 섬을 뜻하는 진도(珍島)다. 남도 진미(眞美)가 그 땅에서 자란다. 환경 전문가들은 진도를 멸종 위기식물의 마지막 거처로 부른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할 것만 골여도 곤이귀개·예기들·자주방귀개·지내발나·풍란 등 5가지다. 지난 1983년에는 한국국산식물로 기록된 조도만두나무라는 희귀식물은 진도 서남쪽의 산초도에서 처음 채집됐다. 진도의 겨울 배추와 파, 봄봄은 참치와 기름치다. 진도는 큰 강이나 개울은 없지만, 사철 물이 마르지 않은 작은 하천들이 유배지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 귀양객 700명 가운데 50여



〈세방낙조〉

전라도 문화의 에센스...珍島에서 진짜 전라도를 느낀다



진도의 골기(骨氣)를 상징하는 침철산(尖峯山) 기슭에 내려본 편 운림산방(雲林山房).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小痴)가 예서 기운 윤림지(雲林池)와 작업하던 화실이 뒤편에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눈에 보는 관광지

하루만에 돌아보는 진도

운림산방·항몽 유적지...가는 곳마다 남도의 즐거움 만끽

진도군은 진도를 비롯해서 조도, 관매도, 거처도 등 23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행 코스를 잡으려면 문화·역사, 다도해 관광, 등산 등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면 된다. 남종화의 진수를 만끽하려면 소진 미술관, 남진미술관을 거쳐 운림산방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항몽유적은 용장산성, 남도석성이다. 침철산(485m)을 비롯하여 여귀산(457m), 동석산(240m) 등 높지 않은 산들이 많아 등산에 제격이다. 침철산 남쪽 자락의 상계사 계곡 일대를 여러 종류의 상목수들이 덮고 있다. 약 19만평의 숲에 감탕나무, 구실잣나무, 동백나무, 모밀잣나무

이렇게 떠나면 알짜여행

당 일

▲진도대교→진도개 모기장→소진미술관→토요민속여행→운림산방→남도석성→세방낙조

1박2일

▲진도대교→진도개 모기장→토요민속여행→운림산방→남도석성→세방낙조→1박→소진미술관→용장산성→이송무공 전합비→금골산

대중, 네티즌 감성형 **광주MBC 문화방**을 출시합니다.

광주MBC 문화방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방콕·앙코르왓
무안↔방콕 직항 전세기
2011. 2. 17 ~ 3. 31 (총 12회)

●호캉사형 : 방콕에 머문 현지 호텔(2박3일), 식사, 항공료, 현지관광 ●문화방형 : 기차/기타도 및 환 알당 US\$30~40/인 별도
●항공사형 : 항공권, 숙박, 연료비, 현지 여행비용 ●유류보조 : 60,000원 (항공/기내/기타)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특시 (태국·시리아·시리아, 수기, 호텔·비행기, 환시·항공권)

●문화방형 : 기차/기타도 및 환 알당 US\$30~40/인 별도
●유류보조 : 60,000원 (항공/기내/기타)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특시 (태국·시리아·시리아, 수기, 호텔·비행기, 환시·항공권)

●호캉사형 : 방콕에 머문 현지 호텔(2박3일), 식사, 항공료, 현지관광 ●문화방형 : 기차/기타도 및 환 알당 US\$30~40/인 별도
●항공사형 : 항공권, 숙박, 연료비, 현지 여행비용 ●유류보조 : 60,000원 (항공/기내/기타)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특시 (태국·시리아·시리아, 수기, 호텔·비행기, 환시·항공권)

●호캉사형 : 방콕에 머문 현지 호텔(2박3일), 식사, 항공료, 현지관광 ●문화방형 : 기차/기타도 및 환 알당 US\$30~40/인 별도
●항공사형 : 항공권, 숙박, 연료비, 현지 여행비용 ●유류보조 : 60,000원 (항공/기내/기타)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특시 (태국·시리아·시리아, 수기, 호텔·비행기, 환시·항공권)

목요일 (3박 4일) 출발
2월 17, 24일 / 3월 3, 10, 17, 24일

일요일 (3박 5일) 출발
2월 20, 27일 / 3월 6, 13, 20, 27일

관광 799,000 부터~

캠보디아 육로 899,000 부터~

골프 1,049,000 부터~

하니문 5일 초특급호텔·럭셔리리조트 1,349,000원

●호캉사형 : 방콕에 머문 현지 호텔(2박3일), 식사, 항공료, 현지관광 ●문화방형 : 기차/기타도 및 환 알당 US\$30~40/인 별도
●항공사형 : 항공권, 숙박, 연료비, 현지 여행비용 ●유류보조 : 60,000원 (항공/기내/기타)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방콕·앙코르왓 2시간 1회 10명
●특시 (태국·시리아·시리아, 수기, 호텔·비행기, 환시·항공권)

제2회 호남권 V.I.P 초청 해비치 골프대회

제주도 6성급 해비치 특급호텔&리조트를 사랑해주시고 골프전문 家 스피드 골프투어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 2011년 3월 15일(화)~16일(수) 1박2일
●장소 : 제주 해비치C.C (정규 36홀)

시상내역

▷남자부 우승	기념패+호텔 디럭스 객실 2박
▷여자부 우승	기념패+호텔 디럭스 객실 2박
▷남자부 준우승	기념패+리조트 32명 객실 1박
▷여자부 준우승	기념패+리조트 32명 객실 1박
▷메달리스트	기념패+골프장 1인 무료 라운딩권
▷통기스트	기념패+아시아나 국내선 왕복항공권 1매
▷니어링리스트	기념패+아시아나 국내선 왕복항공권 1매
▷최다비디상	아시아나 국내선 왕복항공권 1매
▷최다파상	리조트 32명 객실 1박
▷최저타상	골프장 1인 무료 라운딩권
▷추첨행운상	아시아나로고상품, 해비치리조트, 해비치골프장, 해비치리조트상품
▷참가상	해비치리조트, 고급항공 내임

대회일시
▷본 대회 : 2011년 3월 15일(화) 제주 해비치C.C 18홀
▷친선대회 : 2011년 3월 16일(수) 제주 해비치C.C 27홀
※골프장변경기는 : 세인트포CC, 사이프러스CC 등

참가인원 ▷120명 선착순 한정마감 | **참가자격**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방식 ▷샷건, 신페어 | **참가비용** ▷₩ 369,000

포함내역
▷항공료,유기활동료,그린피45홀,해비치리조트, 전용차량, 기시뮬, 여행자보험
※특전사항:조식1회, 중식1회, 특식식1회, 친선대회-해비치C.C 9홀서비스

불포함내역
▷2일째 클럽중식, 전동카, 캐디피, 개인경비

주최 **해비치호텔&리조트** 후원 **아시아나항공** 주관 **투어클럽 & 스피드** 골프투어

예약센터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대리점 | 제주도 특급호텔&골프장 **호남총판 투어클럽 & 스피드** 골프투어 062)382-8201 M.P 010-3613-7810

진도 속살 들여다보기

한국의 남종화의 정수는 진도 운림산방(雲林山房)에 있다. 소치(小痴) 4대가 펼친 길고 웅장한 예술적 스펙트럼을 조망할 수 있다. 빗감곳, 진도다시래기 등 민속과 무속의 세례를 무려 230여건의 진도향토문화유산·국립남도국악원에 걸어야 한다. 230개의 섬이 연출하는 장관을 보려면 세방낙조 전망대에서부터 걸음을 떼야 한다.

다시래기 소리에 상주 눈물이 웃음으로

■구성진 남도소리= "상제(상주)하고 내가나 한 번 잡시다. 오늘날 다시래기를 해서 상제가 웃으면 여기에 모인 상주꾼들과 곳을 보는 돌리 사람들에게 흥분축을 쫓아 주기로 하고, 민악 상제가 웃으면 우리 재민들이 흥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땠소." 다시래기를 주도하는 가성재(거지 상주 역할을 하는 인물)의 서설이다.

강희 상주를 웃기겠다는 다시래기의 대단한 사실을 들으면 토요일에 진도에 가야 한다. 현장에서 사라진 소리로, 4월부터 11월까지 진도향토문화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무대에 올라간다. 이곳에서는 진도 곳과 흥의 뿌리인 강강술래·남도노래·빗감곳·다시래기·북놀이·진도만가·남도잡가, 진도 아리랑 가락을 들을 수 있다. 진도의 곳과 민속은 국립남도국악원의 모태가 됐다. 600여명의 수습하는 국악 전문 극적인 진악(珍樂堂)에서는 금요일 오후 7시에 국악 공연이 개최된다.

이만 설현휴(2월4일)에는 '복을 담아서'라는 주제로 가락, 가어금 병창 등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1박 2일 일정으로, 금요일 오후 5시에 국악원에 도착해 진악당에서 공연을 감상하고 강강술래를 배운다. 또한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청소년 국악체합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소포마을은 누구에게나 소리를 청하면 즉석에서 구성된 진도 아리랑 가락을 들을 수 있는 마을이다. 남도 가락 체험을 원한다면 소포마을에서 운영하는 '전남남도 소리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된다.

배중손 장군의 장렬한 최후 '남도석성'

■항몽 유적지=진도에는 삼별초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풍고군의 창칼에 쓰러진 삼별초의 유해 주검을 묻었다는 '매무덤', 삼별초의 임금(왕)을 위해 군사들이 지었다는 위왕성(威王城), 퇴각하는 삼별초의 가족들이 투신해 숨을 거둔 '급장동굴' 등이다. 대명항쟁의 대표적인 유적은 용장산이다. 삼별초가 성을 쌓고 공을 지어 대명 항쟁의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배중손이 이끌던 삼별초는 왜인들이 축조했던 용장산성을 고라와 몽고의 공격적인 강화 조약에 맞서 항쟁의 근거지로 삼았다. 충무공의 별관대첩 승리를 기념해 세워진 백파진 전망대가 세워져 있는 백파진은 삼별초가 진도에 처음 닿은 배린 곳

다. 백파진전망대는 소진 순재형 선생의 예술 결정체다. 최초의 국악관 흥농재 비문이며, 소진이 비문에 쓴 888자(한자 272자, 한글 616자) 가운데 한글로는 36개가 '이'자 모두 사체가 다르다.

삼별초가 몽고의 대장 홍다구(洪多九)에 쫓겨 목포로 택한 곳은 일회면에 있는 남도석성(사적 제127호)이다. 배중손 장군은 이 곳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퇴각하던 왕은 진도읍에서 운림산방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눈수골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진다. 무덤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왕은의 무덤이라 전해지는 곳이 있다. 남도석성은 성안에 있는 집들이 마치 해바라기 씨앗처럼 총총히 박혀 있어 장관이 아름답다.

소치 4대가 펼친 200년 화맥



■한국 남종화의 성지=운림산방(雲林山房)은 진도의 진산(眞山)인 함철산 아래에 동지를 들고 있다. 소치 허련(小痴 許鍊)의 화실 겸 거처로 지어진 이곳은 한국화의 성지다. 아침과 저녁에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 운림산방에서 소치 4대가 펼친 서화예술은 세계에서 유일한 일가지계 200년에 걸친 화맥이다. 소치의 넷째 아들인 미산 허경(米山 許敬)을 시작으로 남농 허건(南農 許健), 임인 허림(林人 許濂), 임헌 허문(林軒 許文)까지 4대에 걸쳐 5명의 화가가 배출됐다.

운림산방 뒤편에는 허련의 화상을 모시고 있는 윤림사(雲林寺), 오른쪽에는 소치기념관이 있다. 소치의 손자인 남농은 운림산방 본채와 사당제를 복원해 진도군에 기증하는 '메세나'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운림산방 4대 미술의 정수와 번수 과정은 소치 미술관에서 더듬어 볼 수 있다. 운림산방 전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남도 예술은행의 토요일 화가가 배출됐다. 진도를 성내리에 있는 소진(素善) 미술관은 추사 이래 최고 서예가로 꼽히는 순재형 선생의 삶과 작품이 보존돼 있는 곳이다. 서예 대가 장진 허남호 선생이 사비를 들여 건립한 남진 미술관은 그가 평생 모은 초법도, 인물도, 제각각의 출사표 등 국보급 문화재가 전시돼 있다.



남도석성